

역사문화를 활용한 패션쇼 모형 개발

박현정

전주대학교 패션산업전공 조교수

Development of Fashion Show Model using the Historical Culture

Hyun-Jung Park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Business, Jeonju University

(2007. 10. 15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fashion show model as a local festival program by designing the costumes of Chosun dynasty from later 16th century to early 17th century and planning a fashion show. The designed costumes are based on the life of the representative poetess, Maechang Lee, from Buan-gun, Jeollabukdo.

The planning of the fashion show consists of seven stages, that is, finding a theme, composing the story, designing costumes, choosing music, planning intermission events, producing visuals and booklet, and directing model performances. This paper focuses mainly on finding a theme, composing the story, and designing costumes.

Key words: fashion show model(패션쇼 모형), historical culture(역사문화), local festival(지역축제), Maechang Lee(이매창), Buan-gun(부안군)

I. 서론

세계 여러 나라들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의 문화자산을 활용하는 문화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 문화전략으로는 지역경제의 급격한 쇠퇴를 경험한 선진국의 공업지역에서 출발한 장소마케팅 전략을 들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강력한 수단으로 주목받는 것이 축제의 개최이다.¹⁾ 축제는 특정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결집시키고 이를 표출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강화 및 경제 활성화 추구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별로 개최되는 축제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통과 역사를 갖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축제는 소수에 불과하다.²⁾

축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백선혜(2006)는 문화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지역축제의 구성요소로서 문화성, 지역성, 공동체성, 시공간적 집중성, 유희성, 경제성을 필수요소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경제적 가치에 밀려 외면당하기 쉬운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³⁾ 전영옥(2004)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⁴⁾ 하였다. 축제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 매력도를 높여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소재를 발굴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해 내는 축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한 것으로 지역의 역사문화를 활용하여 축제 프로그램으로서의 패션쇼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축제에서 의상이 주요 내용으로 등장하는 대표적 예는 수원시의 정조대왕능행차연시나 해경궁홍씨 진찬연 등⁵⁾과 같이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거나 전주시와 원주시의 한지패션쇼⁶⁾와 같이 지역 특산물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있다.

본 연구는 2005년 10월 29일 전라북도 부안군 축제 프로그램으로 공연되었던 <매창 패션쇼, '이화우 훔날릴제...>⁷⁾의 연구논문으로서, 부안군 출신 여성으로 한국 기류문학의 대표적 시인인 이매창의 일대

기를 소재로 하여 조선시대 남녀 일반복식을 패션쇼 형식으로 구성해 보았다. 매창 패션쇼는 많은 축제 프로그램이 한 지역에서 시작된 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하게 운영되는 유사 프로그램의 답습현상을 극복하고 지역적 차별성을 갖는 창조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시도된 것으로 부안군민에게는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결집시키고,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는 부안군이 낳은 역사 인물의 일생과 그녀의 문학작품과 전통복식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축제 프로그램으로서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II. 지역축제 프로그램으로서의 패션쇼 기획

1. 패션쇼의 형식

패션쇼란 판매증진을 위하여 모델에게 의복과 액세서리 등을 입혀 관객에게 보여줌으로써 패션상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Winter & Stanley Goodman은 “패션쇼란 판매촉진을 위한 모든 활동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압도적인 것으로 생동감 있고 움직이는 형태로 상품을 보여주는 촉진적 매개체”라고 했다.⁸⁾ 패션 상품을 사람에게 입혀 고객에서 선보인 최초의 디자이너는 19세기 찰스 프레드릭 워스(Charles Frederick Worth)이다. 그 후 폴 푸아레(Paul Poiret)는 경마대회에서 모델들을 행진하게 했고, 장 파투(Jean Patou)는 파리 꾸뛰르 프레스 쇼를 일 년에 두 번 개최하는 길을 열어놓는 등 20세기 전반 프랑스 디자이너들은 패션쇼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⁹⁾ 기술의 발달로 인해 패션쇼도 발달되어 무대세트, 조명, 음악, 멋진 모델로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경쟁할 정도였다. 1960년대 메리 퀴트(Mary Quant)는 쇼 모델보다는 사진 모델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를 더 잘 안다고 판단하여 9명의 사진 모델을 뽑아 춤을 추며 계단을 내려오도록 연출하였다. 또한 사냥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노퍽(Norfolk) 재킷과 니커(knicker)를 입고 총과 평을 들고 나오는 등 소품을 이용한 퀴트의 무대 연

출과 춤은 보다 활기 있는 패션쇼를 만들어 냈다.¹⁰⁾

Diehl은 패션쇼의 유형을 구성방식에 따라 패션퍼레이드(Fashion Parade)와 극화 쇼(Dramatizes Show)로 구분하였다. 패션퍼레이드는 초기의 패션쇼 형식으로 해설과 함께 의상을 입은 모델이 차례로 행진하는 것을 말하며 1950년대까지의 패션쇼가 퍼레이드 형식에 해당된다. 극화 쇼는 패션쇼에 오락프로그램, 특수무대장치, 음악, 무용, 서커스 등이 도입되어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유행의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함으로써 뚜렷한 인상을 남기게 된다고 하였다.¹¹⁾

패션쇼는 이와 같이 상품으로서의 의복과 액세서리 등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퍼레이드 형식이나 극의 형식으로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극화 쇼의 형식을 더욱 발전시켜 인물의 일대기를 주제로 쇼의 첫 스테이지부터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연결된 스토리를 통해 패션쇼를 기획하고자 한다.

2. 스토리가 있는 패션쇼

복식사 학문 분야에서는 동서양의 역사적 사건이나 문학작품을 소재로 해당 인물의 복식을 고증 재현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복식 연구¹²⁾, 문학작품의 복식을 일러스트로 고증한 연구¹³⁾¹⁴⁾, 문학작품의 복식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무대영상 연구¹⁵⁾ 등이 그것이며, 이들 선행연구에서 재현된 의상들의 공연 형식은 대부분 영화, TV드라마, 연극, 뮤지컬 등이다. 수 십 년간의 학문적 성과는 시대극 의상 고증에 적용되어 드라마의 경우, 1996년 말부터 1998년까지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용의 눈물>에서 일반인의 눈에 익숙하지 않은 고려 말 조선 초 의상은 드라마의 인기 이상으로 높은 관심을 모았으며, 이후 1998년 <왕과 비>, 2001년 <여인천하>, 2001년 <명성황후>, 2001년 <태조왕건>, 2002년 <제국의 아침> 등에서의 왕조별, 시대별 차별화된 의상 고증은 화제가 되곤 했다.

본 논문에서는 판매상품이나 대중매체물로서가 아닌 지역축제 프로그램으로서 해당 지역의 역사인물을 소재로 일대기의 의상을 패션쇼 형식으로 표현하

고자 한다.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소재를 발굴하여 스토리를 구성한 후, 패션쇼의 유형 중 극화 쇼의 형식을 보다 발전시켜 역사적 인물과 그 시대 의상을 함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패션쇼 기획은 다음과 같은 7단계를 통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 선정 단계로 해당 지역의 역사 인물 중 지역정체성 확립과 문화적 가치가 높은 인물을 찾아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부안군 출신 여성으로 한국 기류문학의 대표적 시인인 이매창을 패션쇼의 소재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 스토리 구성 단계로 선정된 인물의 일대기를 패션쇼에 적합하게 구성하는 것이다. 매창의 시를 토대로 그녀의 일대기를 크게 4부로 나누어 스토리를 구성하고 각 부에 등장시킬 관련인물을 선정하였다. 세 번째, 의상 디자인 단계로 구성된 스토리에 따라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신분별로 분석하여 그에 맞는 의상을 디자인하였다. 네 번째, 음악 선정 단계로 각 부의 스토리 전개와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을 선곡하였다. 다섯 번째, 모델 연기 연출 단계로 단순 워킹이 아닌, 스테이지별로 함께 등장한 인물들과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동선과 연기 동작을 기획하였다. 여섯 번째, 쇼 중간 이벤트 기획 단계로 매창이 기녀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녀의 인생을 시에 담아 남겼으므로 쇼 중간 이벤트로서 무용과 창을 삽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상물과 팸플렛 제작 단계로 연극과는 달리 패션쇼에서 모델은 대사를 할 수 없으므로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패션쇼 스토리를 담은 영상물을 제작하여 쇼 시작단계에 상영하고 또한 입장할 때 관객에게 팸플렛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주제 선정, 스토리 구성, 의상 디자인, 음악 선곡, 모델 연기 연출, 쇼 중간 이벤트 기획, 영상물 및 팸플렛 제작의 7단계로 패션쇼를 기획하였으며 본 패션쇼는 지역축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으므로 무대설치와 조명은 축제에서 사용하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되, 무대의 백드롭(backdrop)에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스크린 장치를 추가하였다.

관객은 마치 공연을 관람하듯 영상물과 팸플렛의 스토리를 연상하며 단순한 의상의 퍼레이드가 아닌 모델의 연기와 무용과 창이 어우러진 패션쇼를 관람

하게 된다.

3. 패션쇼 의상 컨셉

매창 패션쇼의 목적은 상품판매나 대중매체물의 제작이 아닌 지역축제 프로그램으로서 해당 지역의 역사인물을 소재로 일대기의 의상을 패션쇼 형식으로 표현하는데 있으므로 의상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패션디자인과는 다른, 무대의상디자인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무대의상디자인어 김현숙(1995)은 패션디자인과 무대의상디자인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패션디자인이란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패션 동향에 맞추어 의상 및 기타 보조품목을 구상·개발하고 제조·생산하는 일로서 궁극적인 목적이 시장경제에서 패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데 있고, 무대의상디자인이란 희곡이나 대본을 무대상연으로 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공연작품의 시각적 해석 및 예술적 표현을 목적으로 작품의 의도와 인물의 성격에 맞게 의상을 디자인·제작하는 일로서 궁극적인 목적이 공연예술에서 배우를 살아있는 극중 인물로 시각화시키는데 있다고 하였다.¹⁶⁾ 따라서 무대의상이란 살아있는 등장인물이 꾸미는 이야기를 그 내용으로 구성하는 무대예술, 즉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 음악극 등과 같은 공연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계획되고 마련되는 의상이라고 설명하였는데¹⁷⁾ 본 패션쇼 역시 살아있는 등장인물, 즉 모델이 패션쇼 형식으로 스토리를 전달하는 일종의 무대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무대의상디자인의 의상 컨셉 원리를 적용하였다.

무대의상은 크게 성격의상, 장식의상, 시대의상으로 분류되는데¹⁸⁾ 매창 패션쇼는 무대의상 중, 성격의상과 시대의상의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성격을 바탕으로 의상 컨셉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성격의상적 측면에서 색상을 통한 인물과 이미지 차별화를 추구하였다. 패션쇼는 한 모델이 무대에 입장하고 퇴장하는 순환이 연극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배역에 따른 모델을 지정할 수 없고 스테이지마다 서로 다른 모델이 매창 역으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관객으로 하여금 누가 매창이고 누가 주변 기녀들인지 즉 주인공과 주변인물의 구분을

위해 색상을 통한 인물 차별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스토리 전개에 따라 등장인물의 연령, 신분, 역할, 그리고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색상을 통한 이미지 차별화 방법을 사용하였다.

시대의상적 측면에서 매창의 생존연대는 16세기 말(1573)부터 17세기 초(1610)이다. 매창이 살았던 조선은 유교 국가였으며 유교의 본질인 예가 곧 생활규범이었으며 법이었던 시대이다. 의생활에 있어서도 복식을 통해 신분을 구분하고 예를 구현하고자 하여¹⁹⁾ 임금부터 솔선하여 검소함을 실천하며 근검 절약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복식의 신분 구분을 어렵게 하여 수차례 사치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기녀의 일생을 소재로 하였기 때문에 일상복식 아이템, 즉 여자의 치마와 저고리, 남자의 포 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녀들과 선비들의 가체장식, 노리개, 반지, 갓끈 등의 장신구를 활용하여 조선시대 풍류를 표현하였다. 각각의 의상 형태 디자인에 있어서는 16세기말 17세기초 유행자료를 기초함과 동시에 현대인의 눈에도 아름다운 선으로 재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물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인물에게 적절한 소품을 사용하였다. 신분별 의상 컨셉은 다음과 같다.

1) 기녀 복식

조선시대 여자들의 복식은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방한용이나 의례용으로 덧입는 겹옷이 있으며 그 외에 관모나 머리장식, 노리개 등의 각종 패물, 신발류가 있다.²⁰⁾ 고관대작 남자들과 교류하던 기녀들은 천민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려룡단의 최고급 소재와 장신구로 몸치장을 하였다. 저고리의 깃은 조선 초기 목판깃에서 당코깃으로 변화되는 과도기이며, 옆선은 밑단으로 갈수록 약간 퍼지는 형태이다.²¹⁾ 기녀라는 신분적 특성을 감안하여 길이는 허리길이보다 약간 짧게 하였다. 치마는 가슴에 입지 않고 허리에 입었으며, 속바지, 단속곳, 무지기 등 겹겹이 착용한 속옷들로 받쳐진 치마의 부분 실루엣으로 감각적 여성스러움을 표현하였다.

주인공 매창은 다른 기녀들과 구분하기 위해 홍색

치마를 메인 컬러로 하고 유년기부터 성장기를 거쳐 기녀로서의 원숙기, 그리고 병색이 만연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시기까지 저고리 색에 변화를 주었다. 한량들과 어울리는 기녀들은 밝고 진한 분홍색, 연푸른색, 산호색, 초록색 등 기녀들의 자유분방함과 수다스러움을 표현하듯 유치하고 화려한 색상으로 배색하였다.

2) 선비 복식

조선시대 남자들의 복식문화에 변화를 일으킨 중요 요인은 사회경제적 변화이다. 농업이 발달하고 상품 화폐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부를 축적한 평민들은 적극적인 신분상승을 시도하였다. 양반을 사교하는 일이 흔해지면서 신분제도가 동요했고, 하층민들은 상류계층의 복식을 모방하였다. 유교적 규범과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조선시대 남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포를 착용하였다.

선비 복식에서는 직령, 단령, 심의, 도포, 철릭, 전복, 동다리, 대창의, 중치막, 소창의, 액주름, 방령포 등 조선시대 남자들의 다양한 포 류를 빠짐없이 등장시켰다. 한 손에는 술, 다른 한 손에는 기녀를 끼고 매창을 기웃거리다 감히 다다를 수 없는 경지의 시문에 창피 당했던 한량 선비들의 웃이 가볍고 즐거운 풍경화의 색이라면 매창이 사랑했던 유희경의 웃은 조용하고 점잖은 수묵화의 색으로 하였다. 그러나 서책만을 중시하던 그가 시문에 대한 호기심으로 찾아가 사랑에 빠지게 될 때는 화사한 연분홍을 입는다. 선비들의 자유로움과 여유로움, 그리고 고고한 기품과 넉넉한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3) 어린이 복식

우리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옷에 다섯 방위의 색, 오방색을 사용하면 악귀를 물리치고 장수와 길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어린 매창과 친구들은 귀엽고 발랄한 청, 적, 황, 백, 흑의 오방색을 저고리, 치마, 두루마기, 전복, 사규삼에 물들여 입었다.

4) 무용하는 사람들의 복식

첫 번째 무용 의상은 저고리와 두 겹의 치마에서

펼쳐지는 질푸름과 푸르름, 진달래빛과 연분홍, 진홍과 연보라들이 높고 뛰며 가장 빛나던 시절 기녀 매창의 춤사위를 함께 하였다. 두 번째 무용 의상은 궁중정재복의 경사스러운 오방색으로 비록 몸은 떠났지만 세상에 남겨진 매창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노래하며 잔치를 벌였다.

5) 의병들과 백성들의 복식

의병들의 의상은 서민 남자들의 기본복인 백색 저고리와 바지이고 매창의 죽음을 슬퍼하는 백성들은 소색 상복을 입었다.

III. 패션쇼 주제 선정 및 스토리 구성

1. 패션쇼 주제 선정

1) 인물 이매창

이매창(李梅窓)은 1573년 부안현의 아전이던 이탕종의 딸로 태어나 1610년에 3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조선시대 대표적인 여류 시인이다.²²⁾ 계유년에 태어났다 하여 계생이라 불렀고 애칭으로 계랑이라고도 불렸다. ‘매창’은 스스로 지어 쓴 필명으로 ‘창가에 핀 매화’를 뜻한다. 매창이 기녀가 된 경위에 대해서 매창이 아전인 아버지와 기녀 사이에 태어난 딸로서 자연스럽게 기녀가 되었을 것으로 보는 의견²³⁾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진사 서우관에게 정조를 빼앗긴 후 기녀가 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²⁴⁾ 부안에서 전하는 이야기로는 매창은 아버지 이탕종에게서 한문을 배웠는데, 워낙 재주가 뛰어나 시문과 거문고를 곧 익혔으며 비록 기녀였지만 몸가짐이 바르고 품위와 절개를 지켰다고 한다.²⁵⁾

매창이 사랑했던 사람은 시인이자 의병 활동을 한 유희경이었다. 매창의 인생에는 이외에도 김계 군수 이귀와 허균 등이 등장하지만 이귀와는 시를 교환한 흔적이 없으며, 양반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던 허균과는 연인이라고보다는 시 동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허균은 매창의 사립됨과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계랑은 부안의 기녀이다. 시를 잘 짓고 문장을 알았으며, 노래와 거

문고도 또한 잘 하였다. 성품이 고결해서 음란한 짓을 즐기지 않았다. 내가 그 재주를 사랑하여서 거리낌 없이 사귀었다. 비록 우스갯소리로 즐기긴 했지만 어지러운 지경에까지 이르진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가 오래되어도 시들지 않았다. 지금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서 한 번 울어준 뒤 울시 두 편을 지어서 슬퍼한다”²⁶⁾

매창은 38년이라는 길지 않은 인생을 통해 수백편의 시문을 남겼다. 그가 죽은 지 45년만인 1655년에 그의 무덤 앞에 비석이 세워졌고 그로부터 13년 후인 1668년에 개암사에서 그가 지은 시들 중 불안현 아전들이 외에 전해지던 58편의 시를 모아 <매창집>을 간행하였다. 이 중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며 지은 “이화우 놀랄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추풍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래라.”는 시조는 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작은 고을 불안현의 기녀 매창은 값지만 그가 남긴 주옥같은 시어들은 수 백 년 동안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해를 거듭할수록 칭송을 받고 있기에 기녀이자 시인이었던 이매창의 삶을 소재로 하여 조선 시대 남녀 일반복식을 보여줄 수 있는 패션쇼를 기획하였다.

2) 시를 통해 본 이매창의 일생

이매창의 일생에 관해서는 그녀가 남긴 문학작품과 그녀와 교류했던 당시 선비들의 문집에 나타난 단편적 기록들, 그리고 불안군에 전해지는 전설 등을 보충하여 구성해 볼 수 있다. 매창의 어린 시절, 기녀로서 시와 거문고와 춤에 뛰어난 매창, 유희경을 만나 사랑하고 이별하는 매창, 짧은 생을 마감하는 매창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게 4부로 나누어 매창의 일생을 살펴본다.

(1) 매창의 어린 시절

부안에 전해지는 매창에 대한 전설에 의하면 매창의 아버지가 가난하여 훈장일로 연명하면서 매창을 남북시켜 이곳저곳 서당방을 전전하였다고 하며, 그때 매창이 재주가 있어 아버지로부터 글을 배웠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²⁷⁾ 당시 풍습으로는 여자는 서

당에 다닐 수가 없었으므로 부득이 남자로 가장시켜 글을 배우게 했던 것이다.²⁸⁾ 다음 시를 통해 나그네 생활하던 매창 부녀의 외로운 삶을 느낄 수 있다.

산에는 나무마다 낙엽이 지고
기러기 노을 속에 울며 나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리 소리에
초향가는 나그네 눈물 지우네²⁹⁾

어리지만 총명했던 매창은 당시 관아 사또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성장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안 현감 서우관은 권력으로 매창의 정조를 빼앗았고 서우관이 서울로 전근된 후 매창은 그를 따라 서울에 갔었지만 인연이 닿지 않자 다시 부안에 내려왔다.³⁰⁾ 이후 매창의 기녀 생활이 시작되었다.

(2) 시와 거문고와 춤에 뛰어난 기녀 매창

매창은 워낙 재주가 뛰어나 시문과 노래와 거문고에 능하여³¹⁾ 매창이 문힐 때 그가 그토록 즐겨 뜯던 거문고도 함께 문었을 정도이다.³²⁾ 다음 시에서 매창이 거문고를 즐겨 탔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거문고를 소재로 한 많은 시를 남겼다.

내게는 옛날의 거문고 있어
한번 타면 온갖 시름이 다 생긴다오
세상사람 이 곡을 못 알아주니
그 임의 피리에나 맞추어 보리³³⁾

매창은 기녀가 되었다고 해서 자기의 몸을 아무렇게나 내버리지 않았으며 절개가 곧았다. 술 취한 손님들이 접근하여 희롱하려 하면 시를 지어 물리치곤 했다. 다음 시는 지나가던 나그네가 시를 지어 집적대자 매창이 곧 그 운을 받아 응답한 시로서 그 사람은 서운해 하면서 가버렸다고 한다.³⁴⁾

떠돌며 밥 얻어 먹는 법이라곤 평생 배우지 않고
매화나무 창가에 비치는 달 그림자만 나 홀로 사랑했다오
고요히 살려는 나의 뜻을 그대는 아지 못하고
뜯 구름이라 손가락질 하며 잘못 알고 있어³⁵⁾

때로는 술에 취해서 강압적으로 덤벼드는 손님도 있었으며 매창은 그때마다 재치로 위기를 넘겼는데

시화에 많이 전하는 다음 시는 매창이 취객들로부터 위기를 면했던 시이다.³⁶⁾

술취한 손님이 명주저고리를 잡으니
손길따라 명주저고리 소리내며 찢어졌어라
명주저고리 하나쯤이야 아가울게 없지만
님이 주신 은정까지도 찢어졌을까 그제 두려워
라³⁷⁾

(3) 매창의 사랑과 이별

매창이 평생동안 가슴속에 간직한 사랑은 오직 촌은 유희경뿐이었다. 매창이 촌은 유희경을 처음 만난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인 1591년경일 것으로 추정된다.³⁸⁾ 유희경은 당시 문단에서 알아주는 시인이었다. 허균은 우리나라의 시사(詩史)라고 할 수 있는 <성수시화>를 지으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매창, 유희경, 백대봉 세 시인을 기록하였다. 허균은 유희경에 대해 그는 비록 천민 출신이었지만 사람됨이 깨끗하고 조심성이 있어서 많은 사대부들이 그를 사랑하였다고 소개하였다.³⁹⁾

<촌은집>에 의하면, 그가 젊었을 때 부안으로 놀러 갔었는데 그 고을에 계생이라는 이름난 기녀가 있었다. 계생은 그가 서울에서 이름난 시인이라는 말을 듣고 “유희경과 백대봉 가운데 어느 분이십니까?” 물었다. 그와 백대봉의 이름이 먼 곳까지도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희경은 그때까지 기녀를 가까이하지 않았지만 이때 비로소 파계하였다⁴⁰⁾고 하니 이는 그가 그동안 다른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았음을 말한다. 진정한 풍류를 아는 매창의 거문고 연주에 음률을 맞추어 시를 나누며 유희경과 매창은 사랑을 시작하게 된다. 매창을 처음 보던 날 유희경은 익히 들은 매창의 글재주와 노래솜씨를 확인하며 그 감동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남국의 계량 이름 일찍이 알려져서
글재주 노래 솜씨 서울에까지 울렸어라
오늘에서 참 모습을 대하고 보니
선녀가 펼쳐 입고 내려온 듯하여라⁴¹⁾

이외에도 유희경은 매창에게 여러 편의 시를 지어 주면서 사랑을 나누었다. 특히 매창을 놀리며 지은 다음 시는 장난스러운 애정을 듬뿍 담고 있다.

나에게 신기로운 선약이 있어
쩡그린 얼굴도 고쳐 줄 수 있으니
금낭 속에 간직한 귀한 그 약을
정다운 그대에게 아낌없이 주리라⁴²⁾

그러나 이러한 사랑도 오래 계속되지 못했다. 임진왜란의 발발로 그들의 사랑은 이별에 직면하게 된다. 유희경은 의병을 일으켜 싸우느라 사랑하는 이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⁴³⁾ 그들 사이에 사랑의 다짐이 깊었기에 매창은 그를 기다리며 수절을 했고⁴⁴⁾ 유희경도 원래 예학에 밝은 군자였기에 다른 여자를 가까이한 기록은 없다. 임진왜란 후에는 서울에 살면서 매창을 몹시 그리워하였다. 그의 문집에는 길을 가면서도 매창이 그리워 지은 시와 매창과 노닐던 곳에 다시 들러 옛 일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들이 실려 있다.⁴⁵⁾

그대의 집은 부안에 있고
나의 집은 서울에 있어
그리움 사무쳐도 서로 못보고
오동나무에 비 뿌릴 제 애가 끊겨라⁴⁶⁾

그러나 이러한 시가 매창에게까지 보내지지는 않았는지 매창은 한 자의 소식도 받지 못한 채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이별이 하도 서러워 문닫고 누웠으니
옷자락 하얗없이 눈물에 젖소
홀로 누운 잠자리는 한없이 외로운데
보슬비 소리없이 날이 저무네⁴⁷⁾

소나무처럼 늘 푸르자 맹세했던 날
우리의 사랑은 바닷속처럼 깊지만 헤어라
강 건너 멀리 떠난 님께선 소식도 끊어졌으니
밤마다 아픈 마음을 나 홀로 어이할까⁴⁸⁾

여러 해 동안 유희경을 만나지 못한 매창은 유희경의 마음이 변치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야 있었지만 너무나도 그리웠기에 그를 생각하며 여러 편의 시를 지었다.⁴⁹⁾ 그 중 다음 시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이화우 홀날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패라⁵⁰⁾

‘이화우 훔날릴 제...’는 가슴 아픈 이별 앞에 지극한 슬픔을 표현한 것이다. 부안과 서울이라는 공간적 차이가 있었지만 매창과 유희경은 마치 화답하듯이 시를 주고 받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하였다.

(4) 짧은 생의 마감과 문학세계의 영원함

비록 기녀의 삶이었지만 매창이 평생 가슴 속에 담고 그리워했던 사람은 오직 유희경 한 사람이었고 오랜 기다림 때문인지 깊은 병이 든 매창은 외로운 삶 속에서도 유희경만을 노래한다.

독수공방 외로움에 병든 이 몸은
기나긴 사십 년을 기한 속에 살았소
물노니 인생은 그 얼마나 사는고
가슴에 한이 서려 안 운 날이 없노라⁵¹⁾

눈보라 어수선히 나의 창을 두드려
그리움과 시름이 이 밤따라 더해라.
차라리 다시 태어나 다시 만나 보리라. (A)

그리고 38세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매창은 갔지만 그녀가 남긴 아름다운 시들은 시들지 않고 꽃을 피우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녀의 삶은 되살아나고 있다.

2. 패션쇼 스토리 구성

매창 패션쇼는 기녀 이매창의 일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총 4부로 나누었으며 각 부 안에서 다시 사건별로 스테이지를 구분하였다. 패션쇼는 기녀 매창의 인간적 사랑과 애환을 그리고자 하여 그녀가 평생 마음속에 담고 그리워했던 유일한 남자인 유희경과의 사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였으며 그녀의 삶에 등장하는 인물과 이야기를 모두 담아내지 못했음을 밝힌다.

(1) 매창의 어린시절

1부의 주제는 ‘매창의 어린시절’이며 매창이 본격적인 기녀생활을 하기 전까지 어린 시절의 스토리이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여느 어린이들과 달리 총명했던 어린 매창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어린 시절 매

창과 친구들이 등장한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아버지를 따라 유랑하며 글공부를 하던 매창의 소녀시절 장면으로 남장소녀 매창과 유랑하는 아버지, 글공부하는 소녀 매창과 훈장 아버지가 등장한다. 세 번째 스테이지는 시문에 뛰어나 고을 관리들에게 칭찬받던 매창이 진사 서우관에게 봉변을 당하는 장면으로 처녀 매창과 진사 서우관이 등장한다.

(2) 시와 거문고와 춤에 뛰어난 기녀 매창

2부의 주제는 ‘시와 거문고와 춤에 뛰어난 기녀 매창’으로 시문과 가무에 탁월한 매창의 화려한 기녀 시절 스토리이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시문, 거문고, 춤에 뛰어난 매창을 표현하는 장면으로 시를 쓰는 매창, 거문고 타는 매창, 춤 추는 매창, 그리고 무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여 매창과 함께 춤을 춘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매창의 이름을 듣고 찾아와 가볍게 넘보는 한량들을 시문으로 물리치는 장면으로 매창과 한량 선비들과 다른 기녀들이 등장한다.

(3) 매창의 사랑과 이별

3부의 주제는 ‘매창의 사랑과 이별’이며 매창이 유희경을 만나 사랑을 하고 이별의 아픔을 겪는 스토리이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기녀들이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는 유희경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청년 유희경과 기녀들이 등장한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매창이 유희경을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는 장면으로 선비 유희경과 사랑에 빠진 매창이 등장한다. 세 번째 스테이지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의병을 지휘하기 위해 떠나는 유희경과의 이별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의병 유희경과 이별하는 매창, 그리고 의병들이 등장한다. 네 번째 스테이지는 서울과 부안으로 떨어져 지내며 만나지 못하는 유희경과 매창이 시로써 서로를 그리워하는 장면으로 유희경과 매창이 등장한다.

(4) 짧은 생의 마감과 문학세계의 영원함

4부의 주제는 ‘짧은 생의 마감과 문학세계의 영원함’으로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으로 병을 얻은 매창이 일찍 세상을 떠나지만 그녀가 남긴 문학작품들은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칭송을 받는

다는 스토리이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매창이 병으로 쓰러지자 백성들이 슬퍼하는 장면으로 병든 매창과 남녀 백성들이 등장한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사후에 더욱 빛을 발하는 문학작품을 환생한 매창으로 표현한 장면으로 환생한 매창과 무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Ⅳ. 패션쇼 의상 디자인

1. 매창의 어린 시절

1부는 매창이 본격적인 기녀생활을 하기 전까지의 어린 시절 스토리이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여느 어린이들과 달리 총명했던 어린 매창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매창은 노란 색동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를 입고, 여자 어린이1은 백색 무명 누비저고리에 검정색 치마, 여자 어린이2는 분홍색 저고리와 치마에 조각으로 걸쇠를 장식한 청색 두루마기를 입었다. 남자 어린이1은 백색 저고리와 바지 위에 홍색 두루마기를 받쳐 사규삼을 입고, 남자 어린이2는 백색 저고리와 바지 위에 연보라색 두루마기를 받쳐 전복을 입었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아버지를 따라 유랑하며 글공부를 하던 매창의 소녀시절 장면이다. 유랑시절 아버지는 백색 저고리와 바지 위에 황토색 중치마를, 매창은 회색 저고리와 남색 바지의 남장을 하였다. 부녀

모두 괴나리봇짐을 지어 유랑하는 모습을 부각하였다. 글공부할 때 아버지는 백색에 검정색 선 두른 심의를, 매창은 연두색 저고리에 홍색 치마를 입고 서책을 들었다. 세 번째 스테이지는 시문에 뛰어나 고을 관리들에게 칭찬받던 매창이 진사 서우관에게 봉변을 당하는 장면이다. 아리따운 처녀 매창은 연두색 저고리에 홍색 치마를 입었고, 아전들은 빛바랜 감색과 녹색 소창의를 입었다. 사또는 백색 저고리와 바지 위에 동다리를 받쳐 검정색 전복을 입고, 서우관은 백색 저고리와 바지 위에 청색 단령을 입었다.

2. 시와 거문고와 춤에 뛰어난 기녀 매창

2부는 시와 거문고와 춤에 뛰어난 매창의 화려한 시절을 보여주는 기녀 시절 스토리이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3명의 매창이 등장하여 각각 시문, 거문고, 춤에 뛰어남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무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여 매창과 함께 춤을 춘다. 매창은 모두 홍색과 청색으로 저고리와 치마를 배색하였으며 무용하는 사람들은 다채로운 배색의 저고리와 두 겹 치마에 전모를 썼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기녀들과 함께 한량 선비들이 등장하여 매창을 넘보지만 시문으로 이를 물리치는 매창의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기녀들은 밝고 진한 분홍색, 연푸른색, 산호색, 초록색 등 유치하고 화려한 배색의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고, 한량 선비들은 모두 백색 저고리와

<표 1> 매창패션쇼 1부 인물별 복식

	인물	의복	두식	소품
1-1	어린 매창	저고리 / 치마	뱃씨댕기, 땡기머리	
	친구1	저고리 / 치마	땡기머리	
	친구2	저고리 / 치마 / 두루마기	땡기머리	
	친구3	저고리 / 바지 / 두루마기 / 사규삼	복건	
	친구4	저고리 / 바지 / 두루마기 / 전복	복건	
1-2	매창아버지(유랑)	저고리 / 바지 / 중치마	삿갓	괴나리봇짐
	남장소녀 매창	저고리 / 바지	초립	괴나리봇짐
	매창아버지(훈장)	저고리 / 바지 / 심의	복건	
	소녀 매창	저고리 / 치마	뱃씨댕기, 땡기머리	서책
1-3	처녀 매창	저고리 / 치마	땡기머리	
	아전	저고리 / 바지 / 소창의	갓	
	사또	저고리 / 바지 / 동다리 / 전복	전립	등채
	진사 서우관	저고리 / 바지 / 단령	사모	



<그림 1> 1부 - 매창의 어린시절



<그림 2> 1부 - 매창의 어린시절

<표 2> 매창패션쇼 2부 인물별 복식

	인물	의복	두식	소품
2-1	시를 쓰는 매창	저고리 / 치마	가채머리	서책
	거문고 타는 매창	저고리 / 치마	가채머리	거문고
	춤 추는 매창	저고리 / 치마	가채머리	
	무용하는 사람들	저고리 / 치마	전모	
2-2	한량 선비1	저고리 / 바지 / 대창의	갓	부채
	한량 선비2	저고리 / 바지 / 도포	갓	술병, 술잔
	한량 선비3	저고리 / 바지 / 철릭	갓	두루마리
	기녀들	저고리 / 치마	가채머리	



<그림 3> 2부 - 시와 거문고와 춤에 뛰어난 기녀 매창



〈그림 4〉 2부 - 시와 거문고와 춤에 뛰어난 기녀 매창

바지 위에 각각 연푸른색 대창의, 연노란색 도포, 살구색 철히를 입고 각각 부채, 술병과 술잔, 두루마리를 들었다.

(3) 매창의 사랑과 이별

3부는 매창이 유희경을 만나 사랑을 하고 이별의 아픔을 겪는 스토리이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기녀들이 유희경을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유희경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기녀들은 2부와 같은 의상이며 유희경은 자줏빛 방령 배자를 입었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매창이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는 장면으로 유희경은 화사한 연분홍색 도포를 입고 매창은 노란색 저고리에 홍색 치마를 입었다. 세 번째 스테이지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의병을 지휘하기 위해 떠나는 유희경과의 이별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의병들은 빛바랜 소색 저고리와 바지를, 유희경은 엄숙한 진홍색 철히를, 매창은 연분홍색 저고리와 연한 홍색 치마를 입었다. 네 번째 스테이지는 서울과 부안으로 떨어져 지내며 만나지 못하는 유희경과 매창이 시로써 서로를 그리워하는 장면으로 유희경은 짙은 두록색 액주름을 매창은 깨끗한 백색 저고리에 깊고 진한 자줏빛 홍색 치마를 입었다. 이 때 함께 등장하는 매창과 유희경 역의 창 하는 사람들도 역시 같은 옷으로 입었다.

〈표 3〉 매창패션쇼 3부 인물별 복식

	인물	의복	두식	소품
3-1	청년 유희경	저고리 / 바지 / 방령배자	갓	
	기녀들	저고리 / 치마	가채머리	
3-2	매창	저고리 / 치마	가채머리	
	선비 유희경	저고리 / 바지 / 도포	갓	
3-3	매창	저고리 / 치마	가채머리	
	의병 유희경	저고리 / 바지 / 철히	상투머리	
	의병들	저고리 / 바지	상투머리	죽창
3-4	매창	저고리 / 치마	가채머리	
	유희경	저고리 / 바지 / 액주름	갓	
	매창 역 창	저고리 / 치마	쪽머리	
	유희경 역 창	저고리 / 바지 / 액주름	갓	



〈그림 5〉 3부 - 매창의 사랑과 이별

〈표 4〉 매창패션쇼 4부 인물별 복식

	인물	의복	두식	소품
4-1	매창	저고리 / 치마	가채머리	
	남자백성들	저고리 / 바지 / 상복	상투머리	
	여자백성들	저고리 / 치마 / 상복	쪽머리	
4-2	매창	저고리 / 치마 / 활옷	쪽머리	
	무용하는 사람들	저고리 / 치마 / 궁중정재복	가채머리	



〈그림 6〉 4부 - 짧은 생의 마감과 문학세계의 영원함

(4) 짧은 생의 마감과 문학세계의 영원함

4부는 매창이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으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으나 그녀가 남긴 문학작품들은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칭송을 받는다는 스토리이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매창이 병으로 쓰러지자 백성들이 슬퍼하는 장면으로 매창은 백색 저고리에 진한 자줏빛 홍색 치마를, 백성들은 소색 상복을 입었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사후에 더욱 빛을 발하는 문학작품을 환생한 매창으로 표현한 장면으로 매창은 백색으로 응용한 활옷을, 무용하는 사람들은 경사스러운 오방색의 궁중정재복을 입었다.

VI. 결론

본 연구는 전라북도 부안군 축제 프로그램으로 공연된 〈매창 패션쇼 '이화우 훔날릴제...'〉의 연구논문으로서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소재를 발굴하여 해당 지역민의 문화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관광객을 위한 차별화된 축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시도된 것이다. 패션쇼의 유형 중 극화 쇼의 형식을 보다 발전시켜 역사적 인물과 그 시대 의상을 함께 소개하고자 스토리가 있는 패션쇼를 기획하였다.

패션쇼는 주제 선정, 스토리 구성, 의상 디자인, 음악 선곡, 모델 연기 연출, 쇼 중간 이벤트 기획, 영상물 및 팸플릿 제작의 7단계로 기획하였으며, 논문에서는 주제 선정, 스토리 구성, 의상 디자인 단계에 대해 서술하였다.

패션쇼의 소재로는 부안군 출신 여성으로서 〈매창집〉을 남긴 한국 기류문학의 대표적 시인인 이매창을 선정하여 그녀의 일생을 패션쇼 스토리로 구성하였다. 패션쇼 스토리는 총 4부로 구성하였다. 1부는 매창이 본격적인 기녀생활을 하기 전까지 어린 시절의 스토리, 2부는 시와 거문고와 춤에 뛰어난 매창의 화려한 시절을 보여주는 기녀 시절의 스토리, 3부는 매창이 유희경을 만나 사랑을 하고 이별의 아픔을 겪는 스토리, 4부는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으로 병을 얻어 매창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문학작품들은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칭송을 받는다는 스토리이다.

패션쇼 의상 컨셉은 성격의상적 측면과 시대의상적 측면에서 설정하였다. 성격의상적 측면에서 색상을 통한 인물과 이미지 차별화를 추구하였으며, 시대의상적 측면에서 16세기말 17기초 유행자료를 기초함과 동시에 현대인의 눈에도 아름다운 선으로 재

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등장인물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인물에게 적절한 소품을 사용하였다. 패션쇼 의상은 신분에 따라 기녀복식, 선비복식, 어린이복식, 무용하는 사람들의 복식, 일반 백성들의 복식으로 구분된다. 매창을 비롯한 기녀들의 복식은 조선시대 여자 복식의 기본 구조인 저고리와 치마로 하였으며 매창은 다른 기녀들과 구분하기 위해 홍색 치마를 사용하고 저고리 색에 변화를 주었다. 유희경을 비롯한 선비 복식에는 조선시대 남자 복식의 특징인 다양한 포 류를 등장시켰으며, 어린이 복식에는 전통 어린이 복식의 오방색을 사용하였고, 무용하는 사람들의 복식은 기녀 매창의 춤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역시 저고리와 치마로, 매창이 죽은 후 그녀의 작품을 칭송하는 경우에는 궁중정재복으로 하였다. 일반 백성들의 복식에서, 의병들은 서민 남자의 기본복인 백색 저고리와 바지로, 매창의 죽음을 슬퍼하는 백성들은 소색 상복으로 하였다.

복식사적으로 각 의상의 형태디자인에 대한 복식사적 고증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나 논문의 분량문제로 본 논문에서는 전반적인 패션쇼 기획과정과 의상 디자인 컨셉 및 아이템을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매창 패션쇼 ‘이화우 훔날릴제...’〉는 문학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으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소재로 그의 일대기를 통해 조선시대 남녀 일반복식을 보여준 것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를 활용한 지역 축제 프로그램의 창조적 개발이라는 측면과 대중을 대상으로 한 한국 복식사 교육 방법론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패션쇼의 형식에 연극의 스토리 요소를 가미하여 스토리가 있는 패션쇼라는 새로운 장르의 패션쇼를 시도해 본 것으로 상품홍보 및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패션쇼가 아닌 역사 인물과 시대 의상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단 스토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패션쇼와는 다른 요소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모델 워킹의 경우 단순히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워킹 이외에 약간의 연기 동작이 필요하며,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을 표현할 수 있는 소품의 사용, 춤추는 기녀 매창과 함께 하는 무용 이벤트, 매창과 유희경의 시 내용을

전달하는 창 이벤트, 매창의 일생을 콘텐츠로 한 영상물과 팸플릿 제작 등 극의 흐름을 돕는 부가요소들이 포함되었다.

참고문헌

- 1) 백선희 (2006). 도시문화전략으로서 지역문화축제의 지향점과 구성요소 정립에 관한 연구-한국과 미국, 일본 지역문화축제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지리학연구, 40 (1), pp. 107-108.
- 2) 백선희 (2006). 도시문화전략 차원의 지역문화축제 평가요소 비교분석, p. 74.
- 3) 백선희 (2006). 앞의 책, p. 112.
- 4) 전영옥 (2004).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p. 33.
- 5) 수원시 화성 문화제의 정조시대 재현행사에 정조대왕 능행차연시 및 시민퍼레이드, 장용영수위의식, 혜경궁 홍씨 진찬연, 정조대왕 친림과거시험, 정조시대야간군사훈련 등이 있다 (<http://tour.suwon.ne.kr/>)
- 6) 전주시 전주한지문화축제의 전주한지패션쇼, 한지코스프레패션쇼, 한지패션대전 (<http://tour.jeonju.go.kr/>)과 원주시 한지문화제의 한지패션쇼, 한지의상전 (<http://tourism.wonju.go.kr/>)이 있다.
- 7) 이하 〈매창 패션쇼 ‘이화우 훔날릴제...’〉는 ‘매창 패션쇼’로 약칭한다.
- 8) Winters, A.A. & Goodman, S. (1978). *Fashion Advertising and Promotio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 p. 238; 장안화, 박민여 (2004). 현대 패션쇼의 대중문화적 특성(제1보). 복식, 54(4), p. 6에서 재인용.
- 9) Judith C. Everett, Kristen K. Swanson 저, 김은경 역 (2000). 패션쇼 제작가이드. 도서출판책사람, pp. 5-7.
- 10) Judith C. Everett, Kristen K. Swanson 저. 앞의 책, pp. 8-9.
- 11) Mary Ellen Diehl (1976). *How to Produce a Fashion Show*.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 pp. 21-26; 장안화, 박민여(2001).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퍼포먼스적 요소. 복식, 51(4), p. 74에서 재인용.
- 12) 김문자 (2005). ‘계축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복식 고증 연구. 한복문화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 pp. 39-41.
- 13) 김문자 (2006). 춘향전에 등장하는 주요 여자 복식 고증 연구. 한복문화, 9(2).
- 14) 정홍숙 (1998). Shakespeare 희곡, 「햄릿」을 위한 무대의상 디자인 연구. 복식, 36.
- 15) 배수정, 김옥진 (1995). Shakespeare 희곡작품에 나타난 복식 이미지 연구 I-King Lear를 중심으로. 복식, 24.
- 16) 김현숙 (1995). 무대의상 디자인의 세계. (주)고려원, p. 32.
- 17) 김현숙 (1995). 앞의 책, p. 25.
- 18) 김현숙 (1995). 앞의 책, p. 33.
- 19) 박성실외 2인 (2005).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 단국대학교출판부, p. 6.
- 20) 박성실외 2인 (2005). 앞의 책, p. 8.
- 21) 박성실외 2인 (2005). 앞의 책, p. 58.
- 22) Harvard University Library 소장 梅窓集: 허미자 (1988). 이매창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p. 14에서 재인용.
- 23) 허미자 (1988). 이매창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p. 16.
- 24) 김지용 (1974). 매창문학연구. 수도여자사범대학논문집, 6.
- 25) 이능화, 조선해어화사: 허미자 (1988). 앞의 책, pp. 17-22에서 재인용.
- 26) 성소복부고, 권2, '병한난술'의 '애계랑'의 주에서 ; 허미자 (1988). 앞의 책, p. 40에서 재인용.
- 27) 김동주 (1998). 이매창의 생애와 문학. 매창전집(2), 도서출판고글, p. 100.
- 28) 정비석 (1998). 부인 기 계생. 매창전집(1), 도서출판고글, p. 103.
- 29) 김민성 위음 (1998). 매창전집(1). 도서출판고글, p. 107.
- 30) 김지용 (1999). 매창문학연구. 매창전집(3), 도서출판고글, p. 58.
- 31) 이능화, 조선해어화사: 허미자 (1988). 앞의 책, p. 18에서 재인용.
- 32) 김동주 (1998). 앞의 책, p. 77.
- 33) 김민성 위음 (1998). 매창전집(1). 도서출판고글, p. 155.
- 34) 이수광, 지봉유설, 권14 기첩: 허미자 (1988). 앞의 책, p. 16에서 재인용.
- 35) 김민성 위음 (1998). 매창전집(2). 도서출판고글, p. 148.
- 36) 허미자 (1988). 앞의 책, p. 17.
- 37) 김민성 위음 (1998). 매창전집(2). 도서출판고글, p. 120.
- 38) 김동주 (1998). 앞의 책, pp. 103-106.
- 39) 허균, 성수시화, 허경진 (1982). 허균의 시화. 민음사, p. 225; 허미자 (1988). 앞의 책, p. 23에서 재인용.
- 40) 촌은집, 권2, 남학명 「행록」; 허미자 (1988). 앞의 책, p. 24에서 재인용.
- 41) 김민성 위음 (1998). 매창전집(2). 도서출판고글, p. 164.
- 42) 김민성 위음 (1998). 매창전집(1). 도서출판고글, p. 154.
- 43) 촌은집, 권2, 남학명 「행록」; 허미자 (1988). 앞의 책, p. 25에서 재인용.
- 44) 가곡원류; 허미자 (1988). 앞의 책, p. 30에서 재인용. 매창이 유희경을 애절하게 그리워한 심정을 노래한 '이화우 흘날릴제'에 대하여 「가곡원류」는 이렇게 적고 있다. "계랑은 부안의 이름난 기생이다. 시를 잘 지었으며, <매창집>이 있다. 촌은 유희경의 애인 이었는데, 촌은이 서울로 돌아간 뒤에 소식이 없었으므로 이 노래를 짓고는 절개를 지켰다"
- 45) 허미자 (1988). 앞의 책, p. 29.
- 46) 김민성 위음 (1998). 매창전집(2). 도서출판고글, p. 166.
- 47) 김민성 위음 (1998). 매창전집(1). 도서출판고글, p. 171.
- 48) 김민성 위음 (1998). 매창전집(2). 도서출판고글, p. 165.
- 49) 허미자 (1988). 앞의 책, pp. 29-30.
- 50) 허미자 (1988). 앞의 책, p. 30.
- 51) 김민성 위음 (1998). 매창전집(1). 도서출판고글, p. 228.